

'95 제1검정소 우수종돈장상 수상

경 기 양 돈

홍 보 부

경기양돈(대표: 이윤원,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2리 665번지)은 본회 제1검정소가 시행한 95년도 종돈능력검정에서 우수농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화: 0363-441-4829)

경기양돈은 지난 '95년에 챔피언돈 11두 출품, 평균 선발지부 220점, 합격두수 179두, 합격률 74.3%를 기록하여 제1검정소가 산출한 평가 점수 187.5점으로 성현농장에 이어 2위로 우수농장에 선정되었다.

인근에 양돈장이 없는 강원도 청정지역에서 질병없는 종돈을 보급

경기양돈은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백색계통을, 캐나다에서 유색계통인 듀룩을 도입해 기초축으로 활용했으며, 현재는 종돈도입없이 자체농장의 우수종돈을 강 선발해 육종을 해나가고 있다.

이윤원사장은 종돈의 체형과 강건성을 향상시키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 주기 위해 종돈장에 있어서 중요한 시설인 방목장을 설치, 적당한 운동과 일광욕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어떠한 사육환경에 내놓아도 관리가 용이하다.

특히 경기양돈은 강원도의 산간지역에 위치하여 인근에 양돈장이 없는 청정지역에서 종돈을 생산하기 때문에 종돈장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할 질병없는 종돈 보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정숙근 소장(맨좌측)과 이윤원 사장(좌측에서 두번째)이 우수농장패를 들고 있다.

현재 2천여두의 규모에 랜드레이스 22%, 대요크셔 56%, 듀룩 20%, 피어트레인 2%의 비율로 종돈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양돈은 순종돈 생산과 개량만을 전담하는 전문종돈장이다.

경기양돈은 임신돈에서 분만자돈사까지 철저한 올인, 올아웃(All in-All out) 배치시스템 채용을 위해 분만사를 6개칸으로 분리, 한칸당 12복씩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92년부터 검정소에 종돈을 출품한 이후 93년, 94년, 95년 3년 동안 우수농장에 선정된 경기양돈은 직원들이 돼지를 사랑과 정성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돈사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력하여 뜻밖의 손실이 적고 돼지들의 성적이 좋을 수 있었다고 한다.

3년 연속 우수농장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이윤원 사장은 "자만하지 않고 더욱 철저한 관리를 통해 우수한 종돈을 생산하는 데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